

Place to Stay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처

북적거리는 제주 중문관광단지 뒤편에서 숨은 계곡을 만난다. 제멋대로 자라난 백백한 원시림 사이로 폭포가 세차게 떨어지는 곳. 북쪽으로는 한라산이 솟아 있고, 남쪽에는 푸른 제주 바다가 넘실댄다. 그 한복판에 들어선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처는 '자연 속 휴식'이라는 말을 진지하고 정밀하게 구현한다.



Inside



DINING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파노라마**(7am~10pm, 064 795 4163)의 아침. 질푸르게 반짝이는 인피니티 풀이 내려다보이고, 그 너머로 울창한 계곡이 270도로 둘러싸고 있다. 조식 뷔페가 꽤 푸짐해 덤섬과 수비드 비프 스테이크까지 나온다. 해 질 무렵, 이탈리아 레스토랑 **비온드**(12pm~2:30pm, 6pm~11pm, 064 795 4166)의 날찍한 야외 테라스에 앉으면 거대한 하늘이 머리 위를 지붕처럼 덮는다. 바다와 계곡, 중문의 고급 호텔들, 한라산까지 남에서 북으로 광활한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자연 속에서 이탈리아 출신 셰프가 신선한 식자재로 만드는 홈메이드 라비올리, 오소부코 등을 맛볼 수 있다.

ROOM

휴양 여행의 필수 조건은 단연코 늦잠 자기 좋은 방이다. 히든 클리프는 여기에 훌륭하게 부응한다. 특유의 자연 친화적 방식으로 말이다. 체크인 후 **딜릭스 더블** 객실 문을 열면 원목 테이블 위에 웰컴 기프트인 마스크 팩과 천혜향 마들렌, 제주 감귤이 기다리고 있다. 객실은 베이지와 브라운 컬러, 원목을 사용해 안정감 있는 분위기다. 전 객실의 발코니에서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경관이 보인다. 마을, 바다, 계곡, 한라산 경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욕실은 넓고, 록시땅 어메니티를 구비했다. 원목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하고 침대에 몸을 던지자, 내일 분명 늦잠 잘 거라는 예감이 든다. 40만 원부터, hiddencliff.kr

AROMATIC SPA

릴 스파 바이 록시땅(L'île Spa by L'OCCITANE)은 국내의 두 번째 록시땅 스파이자 제주 유일의 록시땅 리테일 숍이다. 100퍼센트 핸드 마사지를 원칙으로 하며 프로방스와 지중해 지역의 전통 마사지 기법을 사용한다. 이곳의 시그니처 트리트먼트는 록시땅 피어니 라인 제품을 사용한 아로마세라피다. 프랑스 남부 드롬(Drôme) 지방의 최고급 작약으로 향긋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위별 집중 트리트먼트 등을 제공한다. 60분 보디 트리트먼트 16만 원, 10am~11pm, 064 795 4158.



INFINITY POOL

국내 최대 규모의 온수 **인피니티 풀**만으로도 히든 클리프에 체코인하기에 충분하다. 지상 15미터 높이에 길이가 47미터에 달하는 인피니티 풀은 가까운 계곡에서 불과 35미터 떨어져 있다. 풀의 가장자리는 유려한 곡선을 그려 거의 계곡에 닿을 듯 보인다. 덕분에 수영하다 보면 마치 원시림 속을 떠다니는 듯하다. 동남아시아 휴양지의 고급 호텔이 부럽지 않을 정도. 밤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조명의 빛깔이 수시로 변해 몽환적 분위기가 흐른다. 어둠에 잠긴 원시림에서 종종 벌레와 새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울창한 나무 위로 달이 밝는다. 풀사이드 바에서 맥주와 간단한 사이드 메뉴를 내며 유아용 풀이 따로 있다. 수영복 유료 대여, 9am~11pm, 064 795 4151.



COASTAL ADVENTURE

호텔 앞의 해안가를 지나서 **제주올레 8코스**를 따라 반나절 탐험을 떠나자. 호텔에서 차로 5분 거리인 논짓물을 시작점으로 삼으면 된다. 논짓물은 여름철 현지인에게 인기 있는 천연 수영장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아담한 물가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갯막 주상절리, 예래 생태공원, 중문해수욕장을 지나 월평 아왜낭목 쉼터까지 이어진다. 부담 없이 산책하려면 논짓물에서 8코스를 따라 서쪽으로 가자. 평탄한 코스가 대평포구까지 이어진다. 포구에는 웅장한 절벽인 박수기정이 절경을 이룬다. jejuolle.org

BOTANICAL GARDEN

중문관광단지가 다소 '관광지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여미지식물원**은 가을 만하다. 28년 전 동남아시아 열대식물 전문 식물원으로 처음 문을 연 이곳은 레트로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다. 식물원 한가운데에 동양 최대의 온실이 있는데 우주선과 흡사한 특이한 구조다. 온실 식물원의 중앙 홀에서 사방으로 6개 테마 정원이 자리한다. 그중 선인장 정원은 바오바브나무와 국내 최대의 금호 선인장을 비롯해 여러 희귀한 선인장이 자라고 있다. 중앙 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면 광활한 야외 식물원과 바다까지 보인다. 야외 식물원은 아주 넓어서 방문할 구역을 미리 정하고 가는 게 현명하다. 멸종위기식물전시원, 소철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니면 발길 가는 대로 거닐며 경치를 즐겨도 좋다. 호텔에서 차로 5분 거리. 9,000원, yeomiji.or.kr



LOCAL CUISINE

호텔 인근에 먹을 곳이 많지는 않다. 현지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호텔에서 차로 3분 떨어진 **제주 국수바다**(고기국수 8,000원, 064 739 9255)에 가보자. 메뉴는 고기국수가 무난하다. 생면을 사용하고 사골 육수에 제주산 토종 오겹살을 얹어 낸다. 비빔국수나 밀면, 성게국수 등 다른 메뉴도 괜찮은 편. 또는 호텔 근처의 예래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간판을 달지 않은 동네 식당을 발견할 수도 있다.



Outside

HIDDEN VALLEY

히든 클리프 호텔 & 네이처는 오랜 세월 발길이 닿지 않은 계곡이라는 입지 조건을 심분 활용했다. 길을 내기 전에는 등산화를 신고도 걸어 다니기 힘들던 계곡 한복판에 야심 차게 도보 산책로를 놓은 것. **히든 트레일**은 호텔 정원에서 시작해 계곡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갯막 주상절리 쪽 해안까지 이른다. 신비로운 영도폭포, 야생화 등 제주 자연의 속살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자. 이 지역은 한국반딧불이연구회에서 지정한 제1호 반딧불이 보호지역이기도 하다. 해가 지면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할 것이다.



WORDS: LEE KI-SUN. PHOTOGRAPHS: HIDDEN CLIFF HOTEL AND NATURE, LEE KI-SUN